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기획물 활발

〈1318문고〉 〈주니어문고〉 〈디딤돌 문고〉 등 시리즈물 꾸준히 출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로 학습과 관련이 없는 교양물이나 문학서를 기획하는 것은 모험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출판계에는 〈1318 문고〉, 〈주니어 문고〉, 〈디딤돌 문고〉, 〈세계청소년결작선시리즈〉 같이 제목에서 확연히 대상층이 드러나는 청소년물을 새롭게 기획하거나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입견대로 실패가 예견된 무모한 모험인지, 아니면 침체한 출판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가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청소년에게 학습참고서가 아닌 그들만의 책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 감격스러운 일이다.

‘청소년’의 범위 애매모호

청소년 독자층에 가장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출판물로는 지난 3월부터 펴내기 시작한 사계절(대표 강광실)의 〈1318 문고〉를 꼽을 수 있다. 감성과 인식이 풍부해지는 청소년 시기에 문학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돕는다는 기획취지로 6권째 펴냈다. 특히 책의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니터제는 〈1318 문고〉만의 자랑이다. 현직 교사·전문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번역된 원고를 읽고 설문에 답변, 자신들의 의견을 출판사측에 전달한다.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다뤘느냐, 그들의 눈높이와 감성발달 단계를 고려했느냐가 이들의 심사기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도서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첫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입시 제도. 지금이라고 해서 입시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의 기획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대상층의 범위가 애매하다. 최근 기획된 시리즈는 모두 ‘청소년’의 범위를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잡는다. 〈1318 문고〉는 표면상으로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로 대상을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만 13세부터 15세 안팎이 구매층이다.

시공사(대표 전재국)의 〈주니어 문고〉도 초등학생용으로 펴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은 독서수준이 비슷하다는 판단 아래 고학년용부터 선보인 경우다. 시공사가 이번에 내놓은 〈주니어 문고〉의 1차분 〈시간탐험대〉 4권은 미국 챗터 북(Chapter Book)의 개념을 빌렸다. 본격문

학에 들어가기 앞서 독서능력을 키우기 위해 5~6학년 이상이 읽는 입문동화라는 것.

도서출판 문원(대표 박종규)이 지난 겨울부터 펴낸 〈세계청소년화제작시리즈〉 역시 대상층이 비슷하다. 이미 94년에 〈세계청소년결작선시리즈〉를 기획해 3권을 펴냈던 우리교육(대표 박성규)은 독서시장에서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판단 아래 새 단장을 감행했다. 〈세계청소년결작선시리즈〉로 기획한 책들을 초등학생 대상의 〈힘찬문고〉에 고학년용으로 새로 편성하기로 한 것.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2·3학년들에게 독서란 없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상층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 정도”라고 우리교육의 신명철 부장은 말한다.

국내 필자 개발 시급

청소년시리즈를 기획한 출판사들의 한결 같은 고민은 국내 필자의 부족이다. 사계절의 〈1318 문고〉도 지금까지 펴낸 6권의 목록 가운데 《행복이 오면 의자를 내주세요》,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다리 건너 저편에》, 《너의 용기만큼 큰 산》은 각기 독일·미국 등지의 작품이다. 나머지 두 권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쓴 국내 필자들의 글 가운데 청소년이 읽을 만한 것을 묶었을 뿐,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본격적인 청소년문학은 아니다. 시공사의 〈주니어 문고〉는 미국 작품이고, 문원의 〈세계청소년화제작시리즈〉도 지금까지 나온 두권 모두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청소년문학이 따로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외국은 청소년문학이 탄탄히 자리를 잡아, 독일의 경우 청소년문학상의 권위가 성인문학상을 누를 정도고, 미국은 청소년도서가 연령별·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문학이 아예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좋은 책일수록 민족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적어 공감대가 넓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의 고민을 담은 국내 작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출판사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문고의 활성화가 국

학습과 관련이 없는 청소년시리즈가 속속 출간되고 있다.

〈1318 문고〉 〈주니어 문고〉 등 제목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청소년 대상의 기획물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들만의 책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출판의 새 국면을 예고한다.

내 필진을 발굴하는 데 큰 몫을 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10년 전부터 〈디딤돌문고〉를 시작해 지금까지 21권을 펴낸 동녘(대표 이진복)은 청소년문고를 통해 국내 필자를 개발한 경우다. 전교조 활동 등 참교육 운동이 붐을 이룰 무렵 청소년들의 시나 산문을 묶어내는 데서 시작했던 〈디딤돌문고〉는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필자를 발굴해 왔다.

한필훈 주간은 “〈디딤돌문고〉는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양서로 자리를 굳혔지만, 그동안 발굴한 송언·박명호·최성수·윤지형 등은 청소년문학의 필진으로 꼽을 만하다”고 말한다. 사계절 역시 〈1318 문고〉를 발판으로 세계 각지의 작품과 견줄 만한 국내 작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다.

단기간 승부보다 신뢰 쌓는 게 중요

최근 청소년 시리즈의 잇단 출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의 교차한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모호함이 부정적인 시각을 대표한다. 시리즈를 구성하는 책을 선정하거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측 때문이다. 과거에 출간된 청소년 시리즈물 가운데 한두권 내서 반응이 안 좋으면 기획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그 생생한 증거다.

하지만 새롭게 시리즈를 펴내는 출판사들의 사명감과 각오는 남다르다. 〈세계청소년화제작시리즈〉라는 이름으로 〈49일간의 비밀〉(자크 팡스텐)과 최근 위고 베를름의 〈파도 타는 소년〉을 내놓은 문원의 김순자 편집장은 “지금 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읽을 거리를 주고 싶었다”며, 아직 많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리즈를 계속 펴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다.

사계절의 〈1318 문고〉 기획자이자 책임편집을 맡고 있는 최옥미 기획위원은 “이제까지 청소년의 책은 학습관련 교양서, 시대에 뒤떨어진 국내의 고전명작, 하이틴 로맨스가 고작이었다”며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보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으로 신뢰를 쌓을 때까지 꾸준히 펴내겠다”고 강조한다.

한편에서는 창비아동문고나 산하어린이문고 등을 ‘성공시킨’ 학부모의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 나이인 바로 지금이 청소년출판을 시작할 때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청소년 출판의 새 국면에 선두주자로 진입한 출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 이현주 기자

